

##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이 종 한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혈연, 학연, 지연 등의 각종 연결고리로 이루어지는 연고집단은 정치, 행정, 경제 등 사회의 상층구조를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연고주의는 한국사회의 현대화 과정에 있어서 엘리트 집단이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소수의 영향력있는 파벌집단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전횡은 이들 내집단들 간에 경쟁적으로 세력확장을 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능력의 총체적 수렴으로 국가발전을 꾀하여야 할 민주사회의 이행에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고집단들이 사회의 상층구조를 놓고 벌이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행태에 대하여 실제적인 자료를 정리하였다. 연고주의로 인한 문제점을 내집단의 폐쇄성과 내집단 간의 배타적 경쟁 그리고 소외집단의 반발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고주의의 심리·사회적 근간을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집단주의의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연고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연결고리에 기초한 인간관계 중심의 사회적 기재보다 개인의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이고 원칙을 고수하는 사회정신을 제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고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정신과 기제를 모색하였다.

삼십여년 만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오늘날까지 묻혀왔던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로 노출시켜서 격의없는 논의가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새롭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는 주제들 가운데 공통적인 것중의 하나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연고주의로 인한 문제들이다(동아일보사, 1991; 윤덕홍, 19

\* 본 연구는 대구대학교 1991학년도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이다.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 유익한 토론을 하여 주신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의 윤덕홍교수에게 감사드린다.

93 ; 한국사회학회, 1990). 한국에서 출세하려면 '연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고,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연줄은 도대체 무엇인가? 현대 한국사회의 변천과정을 개괄하여 본다면,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화된 결과로 자금자족을 주로 하던 단순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첨단매체의 발달과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로 정보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 아울러 사회가 복잡해져서, 그 구조와 기능이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이에 따른 각자의 직업, 지위, 역할 그리고 사회의 규범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여 온 사람들은 소수의 한정된 사람들이고, 이들은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된 집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진균, 1983 ; 동아연감, 1991 ; 동아일보, 1989. 12. 21. ; 동아일보, 1991. 7. 14. ; 세계일보, 1991. 7. 25. ; 윤덕홍, 1993 ; 이종한, 1992 ; 조선일보, 1994. 4. 10. ; 주간조선, 1994. 10. 13. ; 한겨레신문, 1994. 5. 16 ; 한겨레신문, 1994. 9. 5. ; 한국사회학회, 1990). 이렇게 한정된 소수의 사람들이 본인의 노력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주어지는 혈연이나 지연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사회의 상층부를 편파적으로 차지하거나, 소수의 소위 일류학교 출신들이 학연에 의해 배타적인 태도로 정치, 경제 등 전반적인 사회의 상부구조를 독점하는 것은, 이들의 능력이 우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의 우수한 능력에 따라 사회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 이외에도 부가적 보상이 너무 커지게 됨으로써 이러한 연결고리를 가지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결핍감을 초래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연고주의는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김진균(1983)은 현대 한국사회의 구조적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혈연관계, 지연관계, 학연관계 및 직장동료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조직망들이 현대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된 사회적 기제라고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권력 또는 재력을 가진 엘리트집단은 대부분 명문 고등학교

와 대학교의 동창회를 연결고리로 하여 선후배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한 여러 개인, 집단 또는 계층들 중에서 일부가 학력과 재력 그리고 좋은 가정의 배경을 가진 또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위 권력엘리트 집단들이거나 소수의 재벌들이다.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들 집단들은 대개가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혈연집단이거나, 특정학교 졸업생의 모임인 동창회 즉 학연집단 그리고 출신지역을 매개로 하여 뭉친 향우회 등의 과당들이다. 다시말하면, 혈연관계, 동창관계, 또는 지역적 관계를 매개로 하는 연결고리에 의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논문에서 연고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연결고리를 기초로 하여 집단을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 및 행동양식의 한 유형을 가리킨다.

## 연고주의의 실태와 그 문제점

한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들 연고집단들이 정치, 행정, 경제 등 전반적 영역에서 얼마나 편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지 실제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 연고주의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 연고주의의 실태

혈연, 학연, 지연 한국기업의 경우, 혈연에 의한 연고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태가 증명된다. 한국의30대 재벌이 소유한 534개 계열기업의 주식 소유상태를 분석하여 보면 기업의 총수 및 그의 직계가족의 지분이 60%를 상회하고 있다(동아연감, 1992). 이러한 현상은 이들 기업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지 않는 기업가들의 가족이거주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발전을 주도한 권력엘리트 또는 재력엘리트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매개로하여 커다란 파벌집단을 이루고 있다. 100대 재벌가 중에

서 약 25%가 고위 관료엘리트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고 있으며(동아일보, 1990. 9. 20.), 대기업 소유자의 23%(동아일보, 1989. 12. 21.), 각료의 43.6%(동아일보, 1991. 7. 14.), 차관의 60%(세계일보, 1991. 7. 25.)가 영남지방 출신이다. 현대사회연구소가 1990년 3월에 행정공무원 19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응답자의 83.2%가 자신의 출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고의 유무'라고 답하였다.

조선일보(1994. 4. 10)에 보도된 국내 30대 재벌기업에서 1994년 2월과 3월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신입 임원 481명의 지연과 학연에 따른 인적사항에 대한 분석은 재벌기업에서의 학연과 지연의 분포가 잘 제시되고 있다. 지연을 나타내는 출신지역별로는 서울이 34%, 경남 15%, 경북 11%, 부산 5%, 대구 5%로 영남권이 35%인 반면에 전라남북도와 광주를 합한 호남권은 모두 6%로 대조적이다. 출신학교 별로 보면, 서울대가 28.3%, 고려대 13.5%, 연세대 11.0%로 3개 대학의 출신이 52.8%로 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의 대학은 한양대 10.0%, 성균관대 5.2% 등이었으며 지방대학 출신을 모두 합쳐도 11.6%에 그쳤다.

한국사회학회(1990)가 1988년 10월에 실시한 지역간의 갈등에 대한 조사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감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조사대상자 2,020명 가운데 46%가 전라도 출신자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졌으며, 서울, 경기, 충청도 지역주민보다 영남과 강원도 지역주민이 더 높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전라도 지역주민도 경상도 출신자에 대하여 30%이상이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간의 갈등과 지역 연고주의는 서로 상충작용하여 선거시에 그 양상이 여실히 나타나서 '지역당' 그리고 '지역대통령'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하였다.

도로포장율, 일인당 예금액, 상하수도 보급률 등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하는 경제기획원의 1989년 지역별 경제사회지표에 의하면, 전국의 평균치를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경상도지역이 110인 반면에 전라도 지역은 73에 불

과하여 정부의 편향된 정책으로 인하여 산업화의 혜택이 경상도 지역에만 지나치게 치우쳤음을 증명하였다(동아일보사, 1991).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은 권력엘리트 집단이 특정지역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이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지역적 연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균형있는 국가발전 보다 자기 출신 지역을 더 중요시하는 지역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것에서 기인했다고 해석된다.

'한국인의 법의식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2.4%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계층으로는 61.8%가 정치인을, 15.6%가 기업가를 그리고 11.0%가 공무원이라고 하였다(동아일보, 1990. 6. 11).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일 수록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는 국민들의 인식에서 우리의 권력엘리트집단이 얼마나 권위적이며 사회정의와는 거리가 먼가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법을 벗어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정치인, 사업가, 공무원들은 그들을 서로 연결하여 주고 보호할 수 있는 그네들만의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삼십여년 간의 군사정부 통치기간에는, 세사람의 대통령을 배출한 대구와 경북지역 출신으로 뭉쳐진 TK라는 지역적 연결망을 형성하였으며 여기에 이 지역의 혈연과 학연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였던다. 김영삼 대통령의 소위 문민정부 출범은 부산·경남(PK)이라는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새로운 지역적 연결고리를 탄생시켰다. 1993년 2월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4년 4월 16일의 정기 군인사까지에서 나타난 결과는 부산과 경남 출신의 군 장성 진급이 급증하였다. 육군의 경우 6공화국의 마지막 군인사에서 준장진급자가 47명 가운데 부산·경남 출신이 10명(21%)이 었으나, 1993년에는 43명 중에서 14명(32%)을 이 지역 출신이 차지하였다. 또한 6공화국 말기의 중소장급 진급에서는 부산·경남지역 출신이 10%미만 이었으나, 1994년 5월의 인사에서는 31%를 차지하여 대조적이다. 해군의 경우도 1993년 진급자의 30%가량을 부산·경

남 지역 출신이 차지하였다(한겨레신문, 1994. 5. 16).

연고주의의 연결망을 엮어 내는 혈연, 학연 및 지연은 이 요소들이 각기 작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세가지 요소 중에서 두가지 또는 세가지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강력한 연결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의 혈연적 관계를 기초로 한 연결망은 대가족과 종친회 등으로 확산되고 또한 그 지역의 지연과도 복합적 연결망을 가지게 된다. 특히 소수의 소위 과거의 일류 고등학교 출신자들로 이루어진 동창회 즉, 학연 연고주의 집단은 그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한정된 지역적 연고주의의 집단의 성격을 함께 띄게 되어 학연과 지연이 복합된 연고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 연고주의로 야기되는 문제점

이제까지 제시한 자료들은 혈연, 학연, 지연 등의 고리로 형성된 연고집단들을 중심으로 그 집단과 구성원들이 편파적으로 권익을 추구하는 현실을 적시한 것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연고집단들의 모임이나 공식적인 회합에서는 대외적인 명분을 전체 사회 또는 국가를 위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파당의 권익을 추구하거나 권리를 신장하는 집단이기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고주의가 가져오는 문제는 연고집단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인간관계이며, 나아가서 기존의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아서 사회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만을 가진 다수의 소외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연고집단의 배타성은 자신들이 혈연, 학연, 지연 등을 매개로 형성한 내집단 구성원들 끼리만의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주로 하여 내집단 밖의 사람들 즉, 외집단과의 관계를 차별적으로 관계를 차별적으로 거나 거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사회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졌거나 자생력이 있는 내집단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내집단 구성원들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원들만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앞에서 제시한 연고주의의 실태에서 보았듯이 연고주의로 인한 일차적 문제점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연고집단의 배타성이다. 이 배타적 교류로 인하여 사회의 한정된 부(富), 권력과 행정의 상층구조 등을 독점하게 된다. 이러한 배타적 인간관계는 구성원들 각자의 자발적 의사와 관계없이 회원이 되는 집단 즉, 출생에 따라 자동적으로 구성원이 되는 가족이나 특정 학교를 졸업하면 회원이 되는 동창회와 같은 비자발적 집단이 보이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Triandis et al., 1985; Yi, 1991).

연고주의 집단의 배타적 인간관계는 영향력이 있는 연고집단과의 연결고리를 가지지 못한 외집단 사람들을 사회의 주류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연고주의의 배타성의 결과로 생기는 심각한 문제는 소외집단이 생기는 것이다. 강력한 연고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성, 원칙의 무시, 때로는 탈법 등을 자행하게 된다. 사회의 한정된 자원과 권리가 비합리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일부 계층 또는 집단에 편중됨으로 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은 영향력있는 연고집단에 속하지 못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 각자의 유능한 자질을 발휘할 의욕을 박탈하게 되고, 나아가서 소외집단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어 다수의 국민에게 불만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거나 집단적인 불만으로 응집될 수 있다. 1994년 가을에 발생한 소위 '지존파' 등 일련의 살인사건들에서도 먼 원인으로서는 한정된 연고집단의 독점과 다수 국민의 소외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권력이나 돈이 많은 특권계층이 아무 것도 없는 소외된 사람들에 비하여 불평등하게 누리는 법질서의 파행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허다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치주의 국가에서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가

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불공평한 법의 적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혈연, 학연, 지연의 복합적 연고집단은 단순한 연결고리를 가진 집단보다 내집단의 응집력이 강하여 그 집단의 폐쇄성과 배타성이 더욱 강할뿐 아니라 소외된 집단에 비추어지는 부정적 이미지에 의한 영향도 더욱 심각할 것이다. 영향력 있는 연고집단과 소외집단 간의 괴리를 악순환적으로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를 들 수 있겠다. 중앙에 편중된 권력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재벌의 구조는 소수의 강력한 연고집단에게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뿐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소외집단은 점차 사회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말리게 된다.

### 연고주의에 대한 심리사회적 근원

한국의 연고주의의 뿌리는 아주 깊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연산군때부터 왕조 말기에 이르는 약 360년 동안을 정권쟁탈을 위하여 설사이 없이 잇달아 일어났던 노, 소, 남, 북의 사색당쟁으로 잘 알려진 붕당정치(朋黨政治)에서 오늘날의 혈연, 학연, 지연을 끼고 번성하는 연고주의의와 유사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고주의의 근원을 규명함에 있어서 역사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하지 않고, 연고주의에 바탕을 둔 한국인들의 행동을 일종의 사회적 행동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심리사회학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고주의를 한국인들의 독특한 사회적 관계로 보는 바, 이 사회적 행동양식에 대한 비교문화적 분석의 틀로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가족주의와 집단주의·개인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인들의 연고주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가족주의

한국인들이 인간관계를 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근본적인 정신은 무엇일까? 한국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구성 단위는 “집”이며, 이 집은 현재의 가족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도 하고 과거의 선조와 앞으로의 후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최재석, 1987). 가족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들의 가치관은 이조 500년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행동규범을 제시한 유교적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교적 가르침의 중심 사상인 효(孝)에 대한 강조는 대가족 제도의 발달과 수직적인 인간관계의 발달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Fung, 1952). 이러한 효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가족주의의 발달은 가족내의 질서나 윤리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도 일반화되어 사회적 행동규범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율적이고 독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한 집단내의 맥락, 즉 그 사람의 성(性), 연령, 향렬 위치나 신분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이 생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성(姓), 출신고향, 동창 등의 관계에서 아래위를 따지고 친소관계를 설정하여 서로의 관계를 맺는다. 한국인들의 친소에 따른 구분은 가족주의에 근원을 두고서 기준을 혈연과 지연이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출신 학교관계, 즉 학연도 중요시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정의 연(緣)에 기초한 친소의 구분은 파벌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혈연, 지연, 학연 등을 기초로 한 연고주의는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거나 경쟁적인 태도와 관계를 가지게 된다. 배영(1993)은 공동체(community)를 상징하는 용어인 ‘우리(we-ness)’에 대한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의 인식을 비교한 바, 미국인들은 ‘we’와 ‘other’를 중립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반면에 한국인들은 ‘우리’와 ‘남’을 배타적 관계를 함축한다고 보았다.

#### 집단주의·개인주의

한국인의 사회적 행동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개념들로서 집단주의·개인주의가 흔히 사용된다(Triandis et al., 1985; 이종한, 1992).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공동체는 비자발적 집단이며, 가족과 비슷한 조직과 관계로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출생, 또는 그 이외에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선택할 수 없는 조건들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공동체 개념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개인들의 모임으로서 자율적이고 자기확신적인 사람들이 모인 자발적 집단을 뜻한다(표1 참조).

한국인의 비자발적 집단에 대한 편향된 선호

는 본인이 1991년에 실시한 한국과 미국의 중년남자들이 소속한 집단의 유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이종한, 1992).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30세~49세의 기혼인 성인 남자로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직업을 가진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미국 조사대상자보다 동창회와 종친회 그리고 향우회 등 비자발적 집단에 훨씬 많이 소속(55%)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미국의 조사대상자는 비자발적 집단에 소속된 회원인 경우가 6%이어서 대조적이다.

<표 1>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특성 비교

집 단 주 의	개 인 주 의
내집단의 행동규범에 따른 조절	개인에 따른 행동규범
상호의존적	자기충족적
개인의 목표를 내집단의 목표에 종속	개인의 목표와 내집단의 목표가 무관
내집단의 조화를 중요시	내집단에서의 갈등이 허용됨
내집단이 개인의 심리적 장의 중심	개인이 심리적 장의 중심
내집단은 개인의 확장	내집단과 개인이 분리됨
개인이 속한 집단, 특히 대가족에 의해서 사생활이 침해되고 의견 주어짐이 미리 결정됨	각 개인의 사생활과 의견을 가질 권리가 주어짐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의존	집단으로부터 개인의 정서가 독립
안정된 비자발적 내집단	잠정적이고 자발적 집단
'우리'의식	'나'의식
전문성, 질서, 의무, 안정감 등이 조직으로부터 주어짐	자율성, 다양성, 즐거움, 개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개인적으로 추구
안정된 관계 속에서 우정이 우선	특수한 관계에 대한 요구가 우선

Hofstede(1993), Hsu(1971), Parsons & Shils(1951), Pai(1990), Tonnis(1887/1989), Triandis et al. (1985)

<표 2> 집단의 유형별 한국인과 미국인의 소속집단의 숫자 비교

집단의 유형	문화	M	SD	t(df=380)
비자발적 집단	가족모임	.4	.60	8.65 *
		.02	.15	

동창회	한국	1.6	1.51	10.58 *
	미국	.3	.67	
향우회	한국	.1	.33	4.06 *
	미국	0.0	0.00	
자발적 집단	한국	2.6	2.35	6.83 *
	미국	4.8	3.55	
전체	한국	4.7	3.35	1.03
	미국	5.1	3.75	

\*  $p < .01$  이종한(1992).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효'사상에 뿌리를 둔 대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와 집단주의 문화의 배경을 한국인의 연고주의의 기초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고주의의 실태가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혈연관계, 동창관계 그리고 지연관계로 이루어진 내집단의 구성원들끼리만 서로 교류하고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반면에 외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로 경쟁적 관계를 가진다. 일단 어떠한 매개요소로 이루어진 내집단이 그 구성원들 간에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는 것은 혈연으로 뭉쳐진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배타성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타적 인간관계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대인관계라고 설명되고 있다(Triandis et al., 1985).

### 대안 모색

이제까지 근대 한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점도 있지만,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 발전의 걸림돌로서 그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연고주의에 대하여 실증적인 자료와 문화적 특성을 개관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연고주의와 같은 문화적 및 사회적 문제로부터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나라, 즉 북서유럽국가들의 산업화과정과 이웃 나

라 일본의 근대화 과정의 경우를 간략하게나마 논의한 후에 우리의 연고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 북서유럽에서의 프로테스탄티즘

Weber는 근대 유럽의 특징을 자본주의 문화로 규정하였으며 이 자본주의 문화는 비합리적 전통주의로부터 해방된 합리주의 문화로 정의하였다. 그는 유럽에서의 합리주의화와 자본주의화의 성공의 원동력으로 이러한 사회의 변혁을 주도한 시민층과 그들의 프로테스탄티즘에 바탕을 둔 공동체정신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Eisenstadt(1976)는 북서유럽 국가들의 산업화 과정을 다음 세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다. 첫째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있었고, 두번째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지위체제와 조직원리가 다원주의적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산업화 추진담당층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를 내면화한 극히 현실활동적인 중산층이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특히 산업화 과정의 추진세력인 중산층의 공동체정신(ethos)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구 근대화의 원동력으로 설명되는 프로테스탄티즘은 예정된 신으로부터의 구원을 믿고, 인간은 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로 생각하여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의 의지인 '인인애(隣人愛)'를 지상에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이웃사랑은 일상생활화 하였으며, 신에 대한 경건함과

약속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합리적 방향으로 유도하였고, 이러한 합리적 생활태도는 직업윤리, 일에 대한 윤리, 천직의식, 금욕적 생활, 과학적 사고방식 등을 이끌어 내었다. 요약하면, 합리적 공동체 정신은 경제·기술적 측면에서는 산업자본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것이다(윤덕홍, 1993).

### 일본인의 합리적 공동체정신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이 반세기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다시 경제대국으로 일어서게 된 배경과 힘은 무엇이겠는가? 동양이라는 거시적인 문화적 배경이 한국과 비슷할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의 근대화 과정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서구문화와 일찍부터 교류가 있기는 하였으나 프로테스탄티즘과 같은 서구의 정신을 수용하여 그들의 발달에 기초로 삼지는 않았다. 중국의 유교가 '인(仁)'을 강조하고, 한국의 유교가 '효(孝)'를 강조한 반면에 일본의 유교는 전통적으로 '충(忠)'을 강조하였다(Bellah, 1956). 일본의 근대화 초기에는 하급무사와 도시의 상인들이 변화의 주역을 담당하면서 충의 개념을 실천하였으나 후기에는 전 사회계층의 광범위한 참여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일본인에게는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인에 있어서 충은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권력과 위신을 높여서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집단이 번영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일상생활은 전체적 조직을 위한 수단으로 합리화(실천적 합리성)되고, 그 생활의 합리화과정에서 금욕적 생활태도, 근면과 성실, 일의 윤리, 업적과 수행능력의 중시, 능동적·헌신적 봉사 등이 공동체정신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공동체정신이 오늘날의 일본을 건설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하급무사와 상인들에게 내면화 되었던 충의 가치관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를 실천에 옮겼던 북서유럽에서의 중-소생산자층의 공동체정신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윤덕홍, 1993).

### 대안 모색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족이기주의나 연고주의가 아니라 국민전체가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평등한 사고방식을 취함으로써 근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공동체의 개념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국의 전통사회에는 농민들이 조직한 작업 공동체인 '두레 공동체'가 있었다. 이 두레 공동체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상부상조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였다(신용하, 1987). 고려시대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계(契)' 또한 전통적인 공동체의 하나이다(김필동, 1989). 그러나 이미 이들 개념은 우리 사회의 근대화과정에서 약화되어 버렸다고 보이며, 또한 과거의 사회구조와 기능은 현대의 사회의 그것들과 매우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기제를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현재의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의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연고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고양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연고집단의 폐쇄성 그리고 배타성과 이를 강화시키는 심리사회적 기제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의 구조와 기능이 합리적, 원칙적으로 나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연고집단 내의 구성원 간의 폐쇄적인 인간관계가 생겨나고 이것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폐쇄적 관계를 통하여 생기는 이득이 있을 것이다. 예측이 가능한 이득은 친숙한 인간관계에 기초한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Hofstede, 1983)을 일반적으로 들 수 있으며, 보다 실제적인 것은 권력 획득 및 행사, 경제적 이득 또는 문제의 해결 등에서 친숙한 연고주의로 연결된 인간관계를 이용한 이득일 것이다. 일을 함께 있어서 사안이나 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



기 보다 관계를 우선으로 하여 처리하기(김진균, 1983; 윤태림, 1979) 때문에 내집단의 폐쇄적 인간관계가 호상으로 촉진하여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고구조가 일반적으로 합리성, 보편성, 규칙 등을 철저히 지킨다면 현재 한국사회의 기존 연고주의의 연결망 밖에 있는 즉 소외된 사람들도 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연고주의적 인간적 관계로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왔던 사람들도 연고주의에 의한 이득이 줄어들어 따라 현재 보다 합리성과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일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혹자는 앞에서 언급한 혈연, 학연, 지연 등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현재의 한국사회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실제로 특정집단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식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문제점을 은폐한 것으로 기득권층을 옹호하여 소외집단에게는 계속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보편성이 없을뿐 아니라 비합리적 주장이다. 연고집단 내부의 폐쇄성과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은 이 문제점 자체를 강화시키는 모순적 구조와 기능을 개선했으므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의 공무원, 회사 등의 인사선발과 인사관리가 인간관계 보다는 개인의 능력위주로 인사(한겨레신문, 1994. 10. 28.)를 한다면 기존의 연고주의 문제점을 고쳐가는데 전기가 될뿐 아니라 상당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두번째로 연고집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소외집단에 대한 대책은 앞에서의 폐쇄성과 배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결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의 가치체계와 행동규범이 연고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보다 합리성과 보편성 그리고 사리 판단을 더 중요시 한다면, 연고집단에 의한 희생자로서의 소외집단의 발생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한 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자의와 타의에 의하여 영원히 소외되거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서 노력

하기 보다는 영향력 있는 연고집단과 결탁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소외집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은 대다수의 국민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일 것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재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치제도의 변화는 다수 국민의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는 중앙 또는 한 방향으로만 향하는 편중된 결정권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국민들의 생활 가까이로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와서 다수 국민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서 지방분권화는 정부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통제의 폭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의식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연고적 연결고리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회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각자의 다양한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동체심리학자 Rappaport (1987)가 주장하는 '권력 부여(empowerment)'의 개념으로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만하다. 그는 오늘날 미국사회가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었고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도 제대로 못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적으로 여성, 노인,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을 들고 있다. Rappaport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집단이 없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기본권의 확보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역량에 따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조화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이 개념이 미국에 발달한 것이기는 하지만, 연고주의가 만연한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의미는 중요하다고 본다. 권력 부여는 국가의 거대한 권력체제에 집중된 권한을 가 능한한 국민이 나누어 소유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으며, 국민 개인은 국가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욕을 가지게 해준다고 본다. 지방분권화야말로 국민의 권력부여의 과정에 가장 필수적인 대

안 중의 하나라고 보인다.

이제까지 논의한 연고주의가 한국사회를 이끌어 온 중요한 사회적 기제 중의 하나인데, 이 기제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고 본 연구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와 사회구조와 기능의 합리성과 원칙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지방분권화를 통해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개인에게 권력부여를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정책결정 등에 참여하게 하고 감시체제화하는 것이 한국의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연고주의로 인한 여러 병폐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그렇게 변화함으로써 연고주의로 인한 특정집단의 특권을 감소시키고, 소외집단의 불평등으로 인한 무력감을 치유해 주며, 궁극적으로 개인이 정부를 신뢰하게 됨으로써 국민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이제까지는 한정된 소수의 연고집단이 한국사회를 주도하였지만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전체 또는 민족을 통합하여 이끌어 갈 수 있는 보다 광범위의 정신이나 기제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정신 또는 사회적 기제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가족이기주의나 연고주의 이외에 긍정적인 공동체개념이 존재했었다. 비록 전통적인 두레 공동체와 계는 비교적 소규모라는 한계가 있지만 자생적이고 서로 돕는다는 정신에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발전을 향한 긍정적 가능성을 높히 살 수 있다. 1988년에 서울에서 개최한 제23회 올림픽은 일시적이거나 한국사회를 하나의 주제로 뭉칠 수 있었고, 세계적인 행사를 국민적 화합과 자원봉사정신 등으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그리고 올림픽과 같은 행사가 일시적이고 흥미가 강조된 일기기는 하지만 전체 국민이 대동단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제 우리는 연고주의를 초월하여 합리성과 보편성 등을 바탕으로 개인 → 가족 → 동네 → 지역사회 → 국가(민족) → 인류사회를 동시에 묶을 수 있는 열린 구도의 새로운 공동체정신을 부단히 개발하고 실제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진균(1983). 한국사회의 구조적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몇 가지 개념에 관하여. 사회과학연구회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법문사.
- 김필동(1989). 조선시대 계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동아일보(1989). 1989. 12. 21.
- 동아일보(1990). “빈부격차 심각하다” 95.5%. 1990. 6. 11.
- 동아일보(1991). “지역차별大統領”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1991. 7. 14.
- 동아일보사 편(1991). 한국인 診斷.
- 동아일보사 편(1992). 東亞年鑑 1991年版.
- 배 영(1993). 공동체의 개념. 현대사회와 지역사회개발. 제1회 고 배민수 목사 기념학술강좌, 연세대학교 지역사회개발연구소.
- 세계일보(1991). 1991. 7. 25.
- 신용하(1987). 두레 공동체와 농약의 사회사. 신용하 편. 공동체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윤덕홍(1993). 社會發展과 新에토스 形成. 신정치질서와 국가발전전략, 지역/국가 발전 종합학술대회, 정치사회 발전연구회. 97-115.
- 윤태림(1979). 韓國人. 서울: 현암사.
- 이종한(1992). 공동체 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 76-93.
- 조선일보(1994). 서울출신 34%, 서울대는 28%. 1994. 4. 10.
- 주간조선(1994). 군의 복지부동 / 무사안일은 인사불만 때문? 1994. 10. 13.
- 한겨레신문(1994). 급부상하는 육군 ‘1 / 5인맥’. 1994. 5. 16.
- 한겨레신문(1994). 군 인사 편중 여전. 1994. 9. 5.
- 한겨레신문(1994). “밀실 졸속인사 언제까지.” 1994. 10. 28.

- 한국사회학회(1990). 韓國의 地域主義와 地域葛藤. 성원사.
- Bellah, R. N.(1956). *Tokugawa religion: The values of pre-industrial Japan*. Chicago : Free Press.
- Eisenstadt, S. N. (1976). On historical continuity and social change in modernization. In Loubser, et al.,(Eds.), *Exploration in General Theory in Social Science*, New York : The Free Press.
- Fung, Y.(1952).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fstede, G.(1983). National cultures in four dimensions : A research-based theory of cultural differences among nation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XII, 46-74.
- Hsu, F. L. K.(1971). Psychological homeostasis and *jen*: Conceptual tools for advancing psychological anthrop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72**, 23-44.
- Pai, Y.(1990). *Toward a reconceptualization of communit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 School of Education, Kansas City, MO.
- Parsons, T., & Shils, E. A.(1951).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 : Havard University Press.
- Rappaport, J.(1987). Terms of empowerment / exemplars of prevention : Toward a theory for community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5**, 121-148.
- Tonnis, F.(1989). *Gemeinschaft and Gesellschaft*. In R. L. Warren & L. Lyon (Eds.). *New perspectives on American community* (5th ed.), Chicago, IL : Dorsey Press. (reprinted from *Community and society*, 1957, Michgan State University Press : Original work published 1887).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rk, F. L.(1985). Allocentric versus idiocentric tendencies :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Yi, J.(1991). *A cross-cultural analysis of the sense of community from individualist-collectivist perspectiv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

# Negative Effect of Nepotism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nd an Exploration of An Alternative

**Jong-han Yi**

Department of Psychology, Taegu University

A pervasive feature of Korean society is nepotism. Blood ties, alumni groups, and territorial ties are major mechanisms of nepotism in Korean socie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analyze the negative effects of nepotism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2) to explicate the psycho-social bases for nepotism, and (3) to explore an alternative way of dealing with nepotism. Empirical data regarding nepotism were analyzed. Exclusiveness of nepotic ingroup and sense of deprivation of isolated group were discussed as the negative effects of nepotism. The psycho-social bases of nepotism were explicated from familism and collectivist-individualist perspectives. Task oriented value systems and behavioral norms were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he personal relationship based on nepotic network. Decentralization and empowerment were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nepotism. Development of a new and more inclusive community ethos was discussed.